

전북도 농업·농촌 발전 기여 '한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재경전주시민회, 업무협약... 지속가능 도농교류 추진 의지 다져

삼라농정의 대표 실천 기관인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출향인 대표단체인 재경전주시민회가 전라북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자는 뜻을 모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병철)와 재경전주시민회(회장 류근)는 지난 23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사람찾는 농촌'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전라북도 대표 출향인 단체인 재경전주시민회가 협력해 전북도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할 기틀이 마련됐다.

또, 양 단체는 업무협약에서 전북관광거점마을 상호 교류, 지역특산물 구매 행사, 지역인재 장학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추진 의지를 다졌다.

전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타지역 출향인 단체도 적극적인 자매결연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경기지역에는 재경전주시민회를 비롯한 13개 시군의 재경시민회가 있다. 이들 단체도 이번 자매결연 업무협약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한 재경전주시민회 백승기 부회장은 "출향인은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있는데, 이번 공식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 발전에 보다 넓게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오형식 전북도 농촌협력과장은 "출향인들의 전북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지속가능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온열질환 예방 건강관리 주의 당부

전북도, 21일까지 열탈진·열경련 등 총 38명 신고 접수

전라북도에서는 올해(2021.5.20~7.21)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열탈진 18명, 열경련 12명, 열사병 4명 등 온열질환자 총 38명이 신고 접수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실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발생시간은 더운 낮 시간대 14시~17시이며, 여성보다 야외활동이 잦은 남성에게 더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전북도는 최근 전국 내륙에 폭염

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물 자주 마시기, 외출 시 햇볕 차단, 가장 더운 시간대(12시~17시) 휴식하기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열, 두통, 빠른 맥박과 호흡 등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특히 노인, 어린이, 기저질환자(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자 등), 야외작업자 등은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도내 사육 모든 사슴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전북도는 구제역 청정화 유지를 위해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사슴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예방접종은 26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진행한다. 5개 반으로 편성된 사슴전문수의사가 모든 사슴농가(117호, 1,930두)를 방문해 무료로 접종한다.

전북도는 사슴은 예방접종 의무대상 가족은 아니지만,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감수성 동물이므로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과 5년 연속 구제역 청정지역 사육을 위해 접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신접종반이 방문 농장주는 반드시 입회하여 일제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함께 주기적인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외부인과 축산차량 출입 금지, 외출후 농장 복귀시 손 씻기, 작업복 갈아입기, 축산전문 장화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줘 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중대본 회의 발언하는 전해철 장관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 휴가철 맞아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위생점검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다중이용시설 81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전북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이용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피서지를 이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 및 조리 판매업소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일상 활동이 강력히 제한되는 수도권을 피해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이 예상되므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유관기관(시·군, 생활안전지킴이)과 합동단속으로 진행한다.

분야별 점검사항은 방역관리지정

및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 확보 등 방역협력 체계 구축여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여부, 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무신고영업 및 시설내 위생상태,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 축산물의 무표시 등 부적절한 제품 사용여부 등이다.

/유호상기자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

도, 9월 30일까지 운영... 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이 시지연은 2억 원 이하, 군지역은 1억7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이는 당초 지급 기준인 시·군 각각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 1억1,000만 원 이하보다 완화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6,900원,

주거비 42만2,900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부가급여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석 복지여성국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소방, 물류창고 147곳 안전점검 마쳐... 18건 적발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물류창고 147곳의 화재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화재 안전대책을 마쳤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 안전대책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이천 소재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와 관련, 도내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유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

▲소방·건축·전기·산업 안전 등 합동 소방특별조사 ▲소방 지휘관 물


류창고 화재 안전 컨설팅 ▲산업시설 관계자 안전 간담회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등이다.

취약 부분 18건을 적발했고 위반 대상에 조치 명령 5건, 기관통보 13건 및 현지 시정 8건을 조치하는 등 취약사항을 시정했다.

이와 함께 물류창고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지휘관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에 집중했다.

특히 9건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소방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유호상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